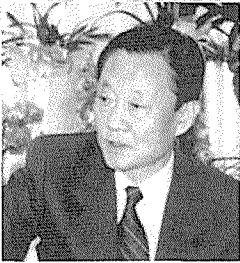


석유협회 창립 21주년에 즈음하여



최 두 환
〈 대한석유협회 회장 〉

오늘 9월 29일은 석유협회가 창립된지 2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우리 석유협회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회원사와 정부관계부처, 그리고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석유협회가 있기까지 기여한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지난 21년의 기간은 국내 석유산업분야에서도 고도성장과 아울러 경영위기의 어려움이 점철된 격변기였습니다. 1980년대의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전반의 전성기를 거쳐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자유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사실상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게 됨으로서 엄청난 변화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한때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석유정책의 근간으로서 정유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소비지정제주의가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고, 정제능력의 과잉상태에서 석유제품수입과 국내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 석유업계는 자유화초기부터 필연적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기존의 일부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서둘러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내 석유업계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내하거나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산업이 전략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석유제품의 연산성으로 개별제품의 원가계산이 어려운 점등 석유산업의 특수성과 유통상의 관행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가운데, 일부 문제들이 침

소봉대되어서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는 석유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CEO 및 임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석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안들의 해결에 힘쓰는 길이 바로 우리 석유 산업을 살리는 큰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석유업계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현재 석유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금년 7월까지의 석유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연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석유수요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소비억제와 연료대체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영향과 아울러 1차에너지소비중 석유의 비중을 점차 낮춰나가는 에너지정책, 그리고 대기오염저감에 중점을 둔 환경정책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원유가격이 공급측면에서 세계석유매장량과 생산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들의 석유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강세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석유시장여건 역시 단기적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이 외자를 도입하여 국내 석유유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는 주유소의 복수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한동안 시장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석유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정제능력 과잉상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공급과잉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아시아지역에서 국내시장에 적합한 석유류제품의 수입물량 확보가 점차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이 앞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 석유시장은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석유산업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지혜를 모아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의 주동 에너지원인 석유의 안정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석유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협회의 목표와 역할을 재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각오를 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